東亞日報
夕刊
八月二十二日(土)
發行人 宋鎭禹
編輯人 薛義植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一〇〇
振替口座京城八七七番
新聞價 一個月 一圓 ◇ 三個月 二圓九十錢 ◇ 一個年 十一圓 (郵稅共)
廣告料 五號活字一行 一圓五十錢 ◇ 三號活字一行 四圓

『反팟쇼』的宣傳問題로 蘇獨關係俄然惡化

獨紙는 一齊蘇聯總攻擊

【伯林二十一日發同盟】獨逸新聞紙들은 蘇聯政府가 西班牙內亂에 對하야 反팟쇼 宣傳을 하고있는것이라하야 一齊히 蘇聯을 攻擊하고있다 ……

戰局依然繼續

【앙데 二十一日發同盟】西班牙北部의 戰局은 依然繼續하고 ……

內亂은 國際戰으로 轉換

【伯林二十一日發同盟】蘇聯政府의 反팟쇼 宣傳에 對하야 ……

蘇聯論難할 資格 獨逸側에는 全然없다

獨紙論評에 對한 佛見解

【巴里二十一日發同盟】獨逸新聞이 蘇聯의 西班牙內亂에 對한 態度를 論難하고있는데 對하야 佛蘭西側에서는 ……

마드리드 政府軍內訌으로 라디오放送暴露

叛軍의 要衝 산 바론 奪回

政府軍 이라人町 奪還

洪提督訪獨

獨洪協定成立?

【伯林二十一日發同盟】洪牙利攝政 호르티提督은 二十一日午後 伯林에 到着하야 ……

佛機二十六機 著西

【리스본二十一日發同盟】佛機二十六機는 二十日 마드리드 飛行場에 到着하였다 ……

西國內亂에 英政府重大警告

【런던二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

不干涉案遂受諾 伊正式覺書手交

【羅馬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外相 치아노伯은 二十一日 駐伊佛蘭西大使 샹브랑氏를 外務省에 招致하고 佛國政府의 提案에 對한 ……

一、伊太利政府는 西班牙本國及西班牙植民地에 對하야 武器、彈藥、飛行機、其他 軍需品의 輸出을 禁止할것을 約束함
一、伊太利政府는 英國、佛國、葡萄牙、獨逸、蘇聯邦이 本協約에 參加하며 따라서 어것을 實施할 用意가있다
一、伊太利政府는 以上과같은 直接的 不干涉協約을 支持하는 同時에 協約參加國의 私的義捐 ……

獨逸側協力拒否로 佛、國際會議召集?

英國은 態度言明을 回避

【巴里二十一日發同盟】佛國政府의 西班牙內亂 不干涉協約案에 對하야 ……

英佛、西政府에 對獨陳謝勸告?

【런던二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

朝鮮災害와 그 對策檢討

人工으로 自然을 征服하는 科學施設의 必要

(五) 梁在厦

一、朝鮮災害와科學 ……

南總督着任同時에 統治方針闡明

革新政策을 斷行

【東京電話】南總督은 ……

大野新總監 着任

神宮에 參拜 卽時初登廳

新政務總監 大野綠一郎氏는 二十二日 ……

電力國營案問題로 首相重大窮地

軍部와 政黨意見對立

【東京電話】電力國策에 關하야 ……

法、內兩相首相訪問

【東京電話】……

橫說竪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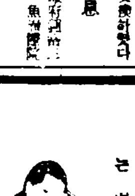
앞은곳에 발느면 낫는곳

夏節의 常備藥

고통이 심할때 응급치료가 되나니 앞은곳·부은곳·쑤시는곳 멍든곳·피곤한곳에 조곰발느면 즉접 환부에 침투되야서 병근원의 뿌리를 끗빼버림으로써 무슨약보다 도속히 낫는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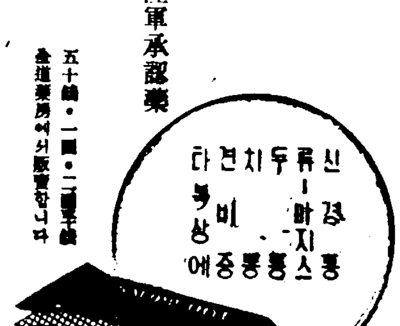
두통치통

매우 가심한 요새에는 흔히 두통과 현기증 또는 번두머리나 치통을 일키쉬우나 이런때에 사로메치-루를 앞은곳에 조곰 발느시고 잠을 자시면 곳낫습니다 흔히 자극없지 않나 두통이나 흔히 체하기쉬운 복약을 잡수시나 이것은 위장을 해하야 효과가 늦게될뿐이며 사로메치-루는 그런법이 없어 직접환부에 작용하는약임으로 속히낫게됩니다



家庭應急常備藥으로

반듯이 어느가정에도 한개식 갓추어두시기 바라오니 갑작이 앞음을늣겨 참지못할병이 발생되시엿슬때 응급처료가되며 펑지낙상 멍든곳 베인때 칼에 어 쌔가고 근육심부가 쑤시고앞을때 또는 벌레 모기 빈대에물닌때 혹은 예방에 사용하시면 우수한 효과를어들수잇습니다



신경통 류-마치스 두통 치통 비증 동상에

陸軍承認藥

五十錢·一圓·二圓五十錢
全鮮藥房에서販賣합니다

사로메치-루
サロメチール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ClibPDF - www.fastio.com

明日이 七夕이자 處暑
暴威의 더위도 인제는 그만

明二十三일은 음력으로 칠석(七夕)이자 一 처서(處暑)이다. 칠석으로 말하면 一년 一도씩 의례히 오는것이나 몇千년을 내려오며 파실를 베풀고 향불을 살아 자식을 빌며 복을 구하는 풍속이 잇으며 아가씨네들은 채색으로 누대(樓臺)를 장식하고 칠석의 재조를 비는것이니 이를 걸교(乞巧)라하며 이날에 의복과 서적을 포쇄하는것이 의례이다. 예전에 학륭(郝隆)이는 이것이 에서 서적을 포쇄하는데 사기는 가난하야 포쇄할서적이 없음으로 자기의배를 폭양에포쇄하엿다는 말이잇다. 금년주 새물난이중에 생명을 빼앗긴 시는 너밤쳐친도 없거니와 가 오날 유심하고 가장 흥이는 이상한 학륭의 배를 포쇄한것과같이 일음이나 포쇄할것 외복의 여유가없을것이니 포쇄할것이잇으랴 참혹한 풍경의날를.

처서라는것은 더위가 집을 지고 들어간다는 말이다. 일로부터 더위는 폭위를 부리지못하고 청량한 가을바람이 더위에 시달린 병든 몸을 소생케할시기다.

五百萬圓의 巨額要求
警察陣擴大强化
國境과擴張된京城府에增員
各道에鑑識係를新設

경무국 경무과에서는 명년도신규요구(新規要求)로 약五百萬원을 요구하야 경찰의각부문 시설을 확충하기로 되엇다는데 그요구가 전부통과될는지는 아직 의문이나 대략예산내용은 다음과 같을것으로 대부분이 인건비(人件費)로써 새로증원될 경부를 비롯하야 순사까지 百五十명의 인원이 새로증가되게될것으로 조선의 경찰진은 더욱충실을 이루게되는것이라 한다.

一、국경의수비대(守備隊)가철퇴되므로 국경경찰을 대충하는것

一、인구가 매년四十만명씩 증가되어가고 각지의 도시계획이진척되는데따라서 경찰서 증설 개소를 증설할필요가 잇다는것

一、더우기 경성부(京城府)의 확장으로 동대문외(東大門外) 혹은서대문외(西大門外)에 경찰서 한개를 증설하게되는것

一、각지형사(刑事)사건의 수사를 신속하게하기위하야 각도에 감식계(鑑識係)를 설치하게 되는것

一、그리고 평산기타 가속부분에 경찰사무가늘어가게되는것으로 그실현여부는 사못주목시된다한다.

麻田에慘殺된婦人
犯行한中國人逮捕
情慾의餓鬼、面刀로殺害

【新義州支局電話】 지난 十二일 오후 六시 마전동(麻田洞)왕자제지회사 옥수수밭에서 한신봉(韓申奉)의 처 용(用○)이란 녀자의 배를 갈러 죽이고 어린애기만 밭가운데서 울고 잇는 참사사건이 잇엇다. 이 괴상한 사건이 생기자 신의주경찰서에서는 불철주야하고 그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썻는데 [illegible] 취조한결과 二十一일 오후八시에 범행 전부를 자백하엿다.

그자백에 의하면 범인 왕지정은 피부병으로 왕자제지 유황탕으로다니며 목욕을 하는중이엇는데 十二일오후五시경 마침 마전동앞을 지나는 길에 전기 한신봉의 부인이 아이를업고 지나는것을 보고 음흉한생각을 품고 녀자를 끌고 밭으로들어가 위협을 하므로 부인은 완강히 저항을 하므로 부지하든 면도를 끄집어내어 그부인의 배를 갈러죽이고 돈三十전까지 빼앗어가지고 유유히 그자리를 떠낫다.

이같은 끔직한 범행을 하고도 여전히 유황탕에가서 목욕을하엿는데 여러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다살인에대한 이야기요 왓다갓다하는것이모다 형사들이므로 무서운 생각이나서 그이튼날부터 목욕하려오지안코 그길로 안동으로 건너가서 안동一번통 모하숙에잇으며 건축공장에서일을하고잇엇든것이다. 형사대는 유황탕에 늘오든 중국인이 없어진것이 수상하다고하여 뒤쫓아 수사한결과 잡은것이라 한다.

〔寫〕쓸쓸해가는 海邊의 여름〔眞〕

交通安全데이에
事故三件、卽死二名

건축경에서 엄하여 일층경고 잇는것을 주어취조한경과 범행사실 전부 자백하게되엿다한다.

電車에衝突 靑年이卽死

二十一일오후 六시二十분경 종로(鍾路)二五五 최규명(崔奎明)(二〇)이가 제一七四호 전차를 운전하야 남대문통四정목 十七번지 앞을 통과하고저할때 三十五、六세 되어보이는 남자와 충돌하야 현장에 넘어진것을 즉시 세부란스의전에 태워다가서 응급수당을 가하엿으나 인사불성이든바 二十二일 오전열시경에 사망하엿다. 그런데 그의주소와 씨명은 알수없다고 한다.

小兒와衝突 運轉手生命危篤

二十二일 오전 十一시三十분경 종로(鍾路)四정목 四十四번지 앞 길우에서 동양합동회사(東洋合同會社)소유 오트바이와 종로四정목 四十一번지에 거주하는 윤정준(尹貞俊)(八)이와 충돌되어 전기 어린아이는 十四일간의 부상을 입고운전수는 어찌된일인지갈비뼈가 부러저 인사불성에 빠진대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엿으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電車에서卽死

인천부화정(仁川府花町)二정목

五山高普代表
蘆田問題로陳情
採取權만은平北道에

【新義州】 오산 고등 보통학교(五山高普)대표김기홍(金起鴻)씨외 四씨가 卄一일 평북도청을 방문하고 박천군(博川郡)동안면(東安面)에잇는 노전(蘆田)을 오산고보에서 채취케해달라고 진정하엿다한다.

시골處女를誘引

四三 전천(全川)아시(○○)는 二十一일 오후四시二十분경 시내명정(明井町)에서 한공행의차를 타고서 명치정(明治町)부근에 이르럿을때 돌연 노인인(○○)이 현장에서 즉사하엿다.

시골의 유인마(誘人魔)가 서울의 경찰에 체포되엇다. 二十一일 오후六시경 부내와룡동(臥龍洞)노상에서 어떤수상한 사나이가 젊은여자를 데리고 방황하는것을 소관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체포하야 엄중 취조한결과 의외에 유인상습자인것이 판명되엇다한다.

동서의 취조에 의하면 그는 충남보령면(保寧郡)출생의 김대경(金大景)(二○)으로 수일전 아산(牙山)에서 신의정(申義貞)(一八)이라는 여자를 유인하여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상경하야 그와같이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본색이 탄로된것이라 한다.

超特急貨物列車 三日間試運轉

철도국에서는 十二일부터 신시로는 "다이야"의 대개정과동시에 초특급화물열차를 운전하기로 되엇다 [illegible] 차의 시운전을 행하기로 되엇다.

올림픽大會映畵
本報愛讀者에提供

이제야 『올림픽』의 幕은닷첫다. 그設備와 規模에잇어서 空前하엿고 그記錄과 收穫에잇어서도 空前하엿다. 그러나 人類二千二億의 先頭를달린 우리의 孫南두勇士의 歷史的制覇戰을 보고온者 누구며 또榮譽의 月桂冠을 싸워인은 광選手들의 씩씩한 擧動을 보고온者는몃몃이드냐。或은電波가 소리를 傳하엿고 活字가記錄을 말하엿다할지라도 그聖戰의 快絶壯絶한 實景을 보지못한것은 한큰 恨事라할수밧에없다。

本社는 이에 痛切히 느끼바잇어 그동안最善의 努力을 기울인 結果 마침내 全編實寫映畵를 空輸로 손에너케되엿으니 本社로서 欣快한것은 勿論이요 不日에 이것을 公開하게되엿는바 그實景을 滿天下讀者로 더부러 가치觀賞하게된것을 생가하면 더욱欣快함을 마지안는다. 기다리자 및날음을拍手하자 感激으로。

時日、場所追後發表

東亞日報社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一 電話光化門二○四四ノ三號
京城府梨花町二○四ノ三號

라디오 JODK 八月二十二日(土)

(釜山放送) 二十三日(日)에는 大邱에서 [illegible] 차의 시운전을 행하기로 되엇다

▲九時二十分 라디오·드라마 『돈』 一幕 [illegible]

▲六時三十分 童謠 ▲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八時 講演 『朝鮮의 [illegible]』 ▲八時二十分 [illegible] ▲八時五十五分 [illegible]

第一放送

▲六時(名)夏休み子供 ▲六時二十分(東) ▲六時二十五分(東)子供の新聞 ▲六時三十分 [illegible] ▲七時 [illegible] ▲八時 [illegible] ▲九時時事解說

天氣豫報

京城地方 今夜는晴 一時曇 明日은同上

七五六미리의 低氣壓은 日本海中部에잇다。滿洲東部에서 樺太에 퍼지고 其先端은 朝鮮의東岸에 突出하엿다。滿洲는晴、朝鮮은 맑앗다 흐렷다。日本은 흐린데 東北地方은 小雨、琉球에서 臺灣은 天氣가 좃다。

昨日氣溫 最高 二八度八 最低 一九度

오디라 京城鍾路五、電氣用品 梅東無線商會 電光二七四二

再燃의郡是罷業
主謀十八名引置取調
問題의監督만은이미高喊질러
大田署、自動車로出動

【大田支局電話】 다시 평파로들어간 군시공장(郡是工場)의 여공들은 연락을와서 하기위하야 하로를 쉬어하는체하고 또 평파에들어갓다。二十一일아침조반시간에 여직공일부는 시사를거절하엿다。일부에서는 취업하자거니 일부에서는 반대하거니하다가 결국재파업을 하게되엇는데 대전경찰서에서는 자동차대로 주모여공十八명을 인치하고 취조를개시하엿다。그런데 五百여명 여공들은 문제의 김두섭(金斗燮)과 조모(趙某)二명이 퇴출하고서 나오면 가 취업하겟다고하여 역시 경찰서에서 여러가지 사태를 살피고 공장은 무사하나 부형들이 여공의 부형들이 불러와서 공장문전은 인산인해를 이루엇다。

女工의態度强硬

사태가 험악하여가므로 충남도사회주사 박춘해(朴春海)씨가 출마하여 여공들에게 간곡히 조정에노력하엿는데 문제의 김두섭만은 그이상 더 직무를 보아야한다고 천고하엿으나 여공들은 그런사람의 아래에서는 일할수없다고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한다.

海外와聯絡活動한
平壤軍官生送局
平南警察部에서 取調九個月
崔鐵洙、韓禹澤等七名

【平壤】 작년十二월十五일경에 평남경찰부(平南警察部)에로 이송되어온 남경 중앙군관학교(南京中央軍官學校)하생최철수(崔鐵洙)、한우택(韓禹澤)등七명에 관한 군관학생사건은 평양서에 유치한지 九개월동안 평남경찰부의 손으로 엄중히 취조를 거듭하고 잇든바 이미 자성되엇으므로 면 二일내로 평양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되리라한다. 七명의 범죄는 모두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상해(上海)만주(滿洲)등지와 연락하야 조선내 공작에 활동하엿다는것이며 종거서 분도 상당히 잇다고한다.

그리고 평양서에는 취조에 내사중 사건으로 사건의 진전이 지하수로 된다고한다.

宗教教育視察
裴德榮牧師特派

기독교 조선감리회에서는 배덕영(裴德榮)목사를 二년간 종교교육 사업(宗教教育事業)에 종사하여오든 배덕영목사를 一년간 미주에 특파하야 미국감리교회의 종교교육사업의 시찰하고 연구케한다는데 배덕영목사는 명二十四일 오후二시 특차로 조선감리교회종교교육사업의 중대한 사명을 띄고 미국으로 향하리라 한다.

(사진은배덕영씨)

前世紀的遺物族譜와
低級한雜誌流行
自然科學部門의書籍은稀少
寒心한朝鮮出版界

자난수년의 출판계(出版界)는 잡지방면(雜誌方面)보다도 양적으로 격증되어다고할수잇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서적과 잡지(雜誌)의 출판물을 보면 [illegible] 지난해에 출판된 출판물은 수적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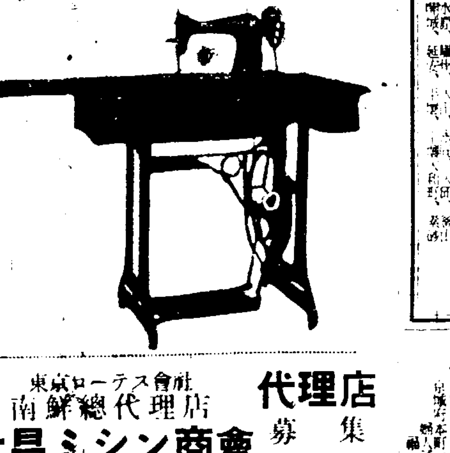
타각종 단체의 발행잡지가 아니면 소위저급한 잡지류에 상당하는 종류의것이만코 그다음으로는 조선의 특수현상인 문집(文集)과 족보(族譜)가만하서 아직도 봉건적 유물인 자가도취의 꿈에젖은것을 볼수잇다。

그리고 단행본(單行本)의 출판물은 가장부문(部門)을 통하야 조선만이 대부분의 종교서적이나 아동서적이 대부분이며 자연과학 방면의 출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야 한심하다고 한다.

開城食刀强盜
犯人을逮捕
今朝、料理店街頭서

【開城支局電話】 지난十四일오전三시三十분경 개성부 북본정(北本町)二○○번지 대금업자 김영복(金永福)의 집에 식도강도가 침입하야 현금 一百二十一원을 강탈하여갓다함은 기보한바 어니와 그후 개성경찰서에서 범인을체포하고저 엄한활동을하여오든중 二十二일 오전 시경 개성부 한정 요리점앞 부근에서 수상한청년을 인치취조한 결과 그가바로 三二번지 상재인것이 판명되는동시에 범행을 자백하엿다고한다.

ミシン界王・プロトス
極美優・堅質品



東京ローテス會社 南鮮總代理店
大昌ミシン商會
全北裡里
電話278番
振替京城24638番

代理店募集
一郡一個所
申込次第規定書送呈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支店 出張所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實踐簿記專修學院

本報京販

恩給 鄭商會

百補丸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年期藥 一劑十圓
京城堅志町 平和堂

우리옷감 대극성광목

セブランス眼鏡院
檢眼無料

實用時計

肺病專門海州療養院
院長 實業博士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活命堂

簿記學生募集(講義錄)
第一高等簿記學會

逐香、看守(講義錄)
朝鮮

優美館
染血の鬼面

團成社

片道鑑札
情熱의블바
網の泥靴
아리소니아

若劇

東亞案內

中古自轉車

ハギレ

어린이日曜

새학기를맞은 어린이들에게

여름방학동안 즐겁게 놀든여러분은 그제부터 학교로다시 갈을 겟입니다。

뵈입에 얽어서 거진한달을 보내든 동무들의 얼굴을 서로맞나 대할때에 얼마나 기쁘겟습니까。 선생님들도 다 안녕하시겟습니까。 그러고 여러분의 동무중에서 병으로나 또는 집안사정으로 학교에오지못한 사람은 없겟습니까。 이런일이 없다면 매우 기쁜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여러분이나 다가치 건강한 몸으로 새학기를 마지하게되엿으니 이제부터는 또열심히 공부들을 하여야지오。

다른때와 달러 가을철이 참이면 공기가 맑고 바람이 시원하야 기분이 조흘뿐아니라 모기、파리와같은 귀찬은것도없어지고 사사밤도 길어저가므로 공부하기에제일 조흔때입니다。 등불아래에 책을 펴노코 이따금 마루밑에서 볼어오는 귀뜨람이소리에 머리를쉬어가면서 오늘배운것을 복습하고 또 내일배울것까지 예습하는것은 범없이 재미나는일입니다。

어러분중에서 여름동안에 날마다 그저 뛰어다니며 놀다가 일기와 과제장을 개학이가까운때에 와서야 되는대루 하여버린사람이 잇다면 그런사람은 그동안에 조치못한 버릇이 생긴것이니 새학기부터는 비록몰다시 단단이먹고 노는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여 꼭꼭지켜가도록 해야합니다。 여름방학에 그날그날해야 할일을 사꾸밀어가면서 놀기에만 정신이 팔렷든 사람이 새학기에 와서도 그버릇을 그냥 가지고잇으면 나중에는 모르는것이 사사늘어가나가 아주 공부하기가 실혀지고 바는수가 잇습니다。 그러케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여름동안에는 부모님께 용서를하고 아침에도 일직일어나지아니하고 늦잠을자든 버릇이생긴 사람은 그버릇을 속히 고치도록하여야 합니다。 아침마다 일직이 일어나서학교에 늦지안케 순비를 하십시오。 요사이 아침에 일즉 일어나면 기분이 매우상쾌합니다。

이러케하여 이번학기에는 아수 공부를 잘하여서 학교에가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참말훌륭한사람이될수잇습니다(끝)

칠석날의옛전설 견우직녀이야기

금년오늘도눈물의비가올까?

이번 일요일은 양력으로는 八월스무사흗날이오 음력으로는 七월초칠일날입니다。 七월초칠일날은 옛적부터 칠석이라고하야 이날에 여자들은 책상우에 색실과 바눌을 버려노코 재주와 행복을 빌엇고 중국도 잇엇고 또 이날에나라에서 선비들을 불러 문제를 내고 글을 지케하던적도 잇엇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보다도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칠석날에 대한 이야기로 좋은것은 아마도 견우직녀와 이야기일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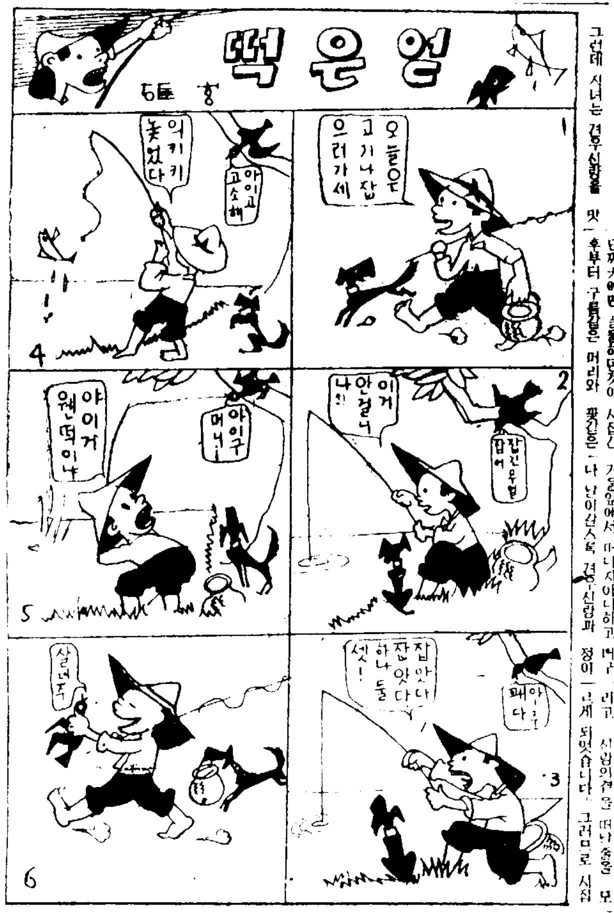
견우직녀이야기는 여러분도 대강은 다 알고잇는것이니까 되푸리할 필요가 없다할수도 잇겟습니다마는 저 하늘우에서 견우와 직녀가 一년에 한번씩 다시만난다는 그이야기처럼 우리도 어난이되면 그이야기를 다시한번 하게됩니다。 더구나 아직도 견우직녀이야기를 잘모르는 사람이잇다면오늘 이이야기를 하는것이 조흘까합니다。

◇ ◇ ◇

옛날、아주옛날에 하늘에 임금님이 계셧습니다。 그임금님에게는 따님한분이 잇엇는데 그따님이 소문난 재주가 잇어 하늘에서도 비길 사람이 없는 아가씨엿습니다。 차차 시집갈 나이가되어 가건만 베단짜기를 조하하야 날마다 틀에 앉어 베를 짜는것이 과부를 솜씨를 부렷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직녀(織女)라고하엿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처여운 따님에게 조흔 배필을 얻어 주려고 중매바람을 시켜서 신랑감을 골라보라하셧습니다。 은하수 저편에 견우(牽牛)라하는 소먹이는 총가이잇엇는데 마침이 남첨하고 얼굴이 청수하야 신랑감으로는 아수저니한일이엇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중매바람의 입에서 견우의 이야기를 드르고 매우 기뻐하시어 그총가에게로 따님을 시집보내기로 하시고 까마까치를 시켜서 은하수에 다리를 노케하엿습니다。 직녀는 그다리를 건너서 견우에게로 시집갓습니다。

그런데 직녀는 견우신랑을 맞나기전에는 부지런하든 것이 시집간 단짜기에만 살림하던것이 시집간후부터 구룡같은 머리와 꽃같은 나날이 갈수록 견우신랑과 정이 깊어서 지금은 베짜기도 잇어버리고 서방의경을 떠나숨을 못드게 되엿습니다。 그러므로 시집을 간후에는 아버님께 가서 뵈오지도 아니하엿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매우 노하셔서 직녀를 불러오라하고 그후에는 한번씩 七월七석날에만 맛나게하엿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가 기다리다가 一년에 한번씩 맛나게 되엿습니다。 예나제나 가다리고 마음에 오늘이 자연 늦어지게 되고 맛나자마자 또 갈려저야 하는것이니 섭섭한생각에 또 눈물이 나서 하늘에서는 七석에는 언제나 적은 비가 오는것입니다。

견우직녀의 이야기는 대개 이러한데 견우와 직녀는 다 별의이름입니다。 은하수란 사이에 두고 서편에 빛나는 별이 잇습니다。 그것이 견우이오、바로 그건너 은하수동편에 또 빛나는 별이 잇습니다。 이것이 직녀성입니다。 칠석날이 가까와오면 이두별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 마주 대하게되므로 이것을보고 저러한 이야기를 어느누가 지어낸것이겟지오。(끝)



大中의少女詩人 淨海暎海의姉妹

정해는여섯살、영해는네살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읍(慶北達城郡玄風邑)에는 놀랄만한 애기사인(詩人) 두형제가 잇습니다。 현풍읍에서 금융조합에 일을 보고잇는 정홍범(鄭洪範)씨의 두따님입니다。 정홍범씨는 일찍이 동경 명치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한 이로서 지금은 농촌에 돌아와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슬하에 다만 여섯살된 정해(淨海)와 네살된 영해(暎海)의 두딸이 잇는데 두아이가 다 배우뚱명하고 천진스럽습니다。 더구나 타고난 재질이 그대로 시인이어서 보는대로 듣는대로 그조그만 입술에서 흘러나오는것이 훌륭한 시구(詩句)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붓을 들어 시를 쓰는것이 아니오 혼잣말같이 한두 한마디 한마디를 곁엣사람이 적어보면 그것이 어른도 탄복할만한 시입니다。

어느 찌는듯이 덥던날의 초저녁때에 큰아이 정해는 어머님과 동생 영해와 함께 모기장속에 누워잇다가 모기장밖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를 보더니 다음과같은 말을 하엿습니다。 한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안코 고대로 적습니다。

나가기전에는 부지런하고 비단짜기도 잘하엿습니다。

사진 오른편은 정해(六) 왼편은 영해(四)

모기가 모기장밖에 만히붙엇다。 지모기가 엄마하고 나하고 영해하고

똘이미웁다고 붙잇다

모기는참 나빼다 피를 미고 사다 사람따가 모기만이 다

암만해도 오늘밤에 배가고파 죽는다 이안에 못들어와서 엄마 나 영해 따물고 못미는다。

○ ○ ○

보십시오。 어러케 출중한 시가 아닙니까。 이것이 여섯살먹이 안된소녀의 시리이면 누구를 도래지안겟습니까。 다음에는 작은아이 영해의 시를 소개하겟습니다。

장마비가 여러날을 연겊어나리다가 참새한마리가 마루에서들 밥을 먹다가 무엇을 주어먹는것을비상된 영해가 참새고요히 나려다 보더니 다음과같은 말을하엿습니다。 여시한자 더하지도 안고 고대로 적습니다。

새비야 비오는데 우산도 안쓰고 미ー하노ー응 새비야

옷이다젖는다 아가새비는 어디갓노

아가새비는 집에가기라 고만에 아가새비가 운다 아가새비 까까(菓子)사다가주나 우리엄마는 우산쓰고 까까사리 가는데

○ ○ ○

이것은 현풍읍에 사시는 우리생(學生)이라고 하는이가 적어보낸 시인데 본사에서는 다시 본사현풍지국으로 조회하야 더자세한 일을 알아보고 사진도 빼여온것입니다。 우리는 정해나 영해와같은 어린시인의 건에 우리혐생과같은 시아는 분이잇어서 어린아이들의 말을 시로옮겨수고 고대로 적어준것을 여간 다행으로 생각하지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어린니들께 혼자서 어린이의 천분을 발견하기에 세심한주의를 하신다면 숭은 천재를 만히 길러낼수 잇을것입니다(끝)

동요

참새전보

金三葉

해가떳다 참새가 전보치나요

해바라기 못는다 전보치나요。
참새말로 쌕、쌕、
몰롤말로 쌕、쌕、
누구누구 나와서 전보받나요
어여뻐리 나와서 전보받음죠。
×
오순싸기 깨라구 전보치나요
나발꽃이 펏다구 전보치나요。
참새전보 쌕、쌕、
쉬운전보 쌕、쌕、
무슨무슨 말인지 나는몰라요
아빠엄마 아는지 나는몰라요。

—(끝)—

白蓮流轉記 (150)

尹白南作 李靑田畵

十五、등전(?)이 六

서참봉은 영백이와 나라니 서서 성황당을 나려다보며 저기 보이는 너른 잔디밭이 마전터인데 문안 드림전이나 백목전에서 파는 백목의 마전도 하야케 날어두치안엇오。

은 대개 여기서 해가는데 지금 설명을 하기는 하야도 건성으로 하며 설명을 한다。

부 하다 성신은 바로 뒤에 서잇는 오완이에게로 가서잇다。

오완이의 일거일동에는 서참봉의 노이가고 잇을뿐이 아니라 이편 벽불단뒤에 숨어잇는 배련의 눈도 못으로 빼인뜻이 쏠리어잇다。

로 눈짓한다。

반신을 닭밖으로 내 어니고 그조사하는사자를 앞으라는 영백의 다리를 들어 서너진 되는 절벽에 서 아래로 떠러트리자는 서이엇다。

안에며는 바위밖에 쑥 니리어 저기에 떠러지기만하면 죽지야 하지안으면 반죽엄은 면할것이다。

영백이가 무심코 반신을 내민자 오완이는 한거름 앞으로 나어선다。

「예인(?)」

배련은 기침을 크게하며 써나 기침소리에 놀란 오완이는 멈

칫하고 물러서고 얼니엇든 영백이도 봉창 몸을 끄고 바로 선다。

오완이와 서참봉은 배련을 돌여본다。 그러나 변장한 배련을 알아볼수는 없엇다。

배련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보이지안토록 주의를하며 골과 한간밖에 떠러지지 아니한 벽돌담에 두팔을 언제 더욱 고이고 무심히 보는듯이 먼산을 바라보고 잇엇다。

영백은

「그거참 읽기 어려운걸 더구나 백인글자 회에 주두를 멋거나 먹을 너거나 해야만 읽기가 편한데…… 어디 당신좀 읽어보우。」

하고 오완이에게 전한다。

「내 내가 좀 읽어볼까。」

오완이는 그 글시자가 보고 싶은것은 아니엇지마는 영백에게만 전하고 자기에는 전을 보지 안는다면 의심을 살지안을까해서 우정 읽어보기로 한것이엇다。

「아무러기루 그럼 못 읽을까。」

하며 반신을 담에 걸치고 거꾸로 엎드리엇다。

백련은 마치 그것을 구경하는듯이 뻣거서 그리로 걸어가서는 벌안간 비조같이 달려들엇다。

서참봉과 오완이의 얼굴에는 분명히 本소의 빛이 떠올랏다。

서참봉은

「이리로와 보슈。」

하고 영백이를 끄을고 벽돌담이 반이나 문허진곳으로 가서 반신이나 그 문허진곳으로 내민어 바로 문무안에를 엽드려서 나려다 보며

「바루 요 밑에 돌에다가 색인 글시가 잇는데 그것을밟어다보는 사람이면 무엇이던지 평생에 먹은마음을 한번은 성취한다고 해서 이문에 올으는 사람이면 한번씩은 그것을 읽어보라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러케 본히 젓습네다 당신두 한번 어디 시험해 보슈그려。」

하고 웃으며 권한다。

영백은 그 조가한글시가 엇인지 읽어보라는 호기심도 잇으려니와 마음 먹은것이 하나는 성취된다는말에 흥미를 느끼어

「어디 물러스시우 한번 읽어봅시다。」

하고 반신을 그문허진곳에다가 척 걸치고 앞으로 엎드린다。

그 순간 서참봉과 오완이는 서

少年小說 열세동무 (七)

盧良根作 洪祐伯畵

十六、여름방학(一)

하여간 시환이나 보가통녀분에 우불에무치고 우불에 무치기때문에 세상에안나가지서 일뻐사십여원의 밥은 농업학교 받이어서 거기서 살님여원은 보기부터 위원비 치묘비로뻣고 남저지 배월중에서 월겹에게 오십원보내고 오십원남은것에서 복동통짓는데 새보앗、쇠가마솥、또 보자리화때 소사없부엇부엇해서 한이십원가랑 쓰고보니 사십원가수밖에 남지안엇습니다。 그것을 시환이는 한길아가내려오겟다는 편지받은 이튿날쯤 윤겸에게 또 부처주엇습니다。

이날 윤겸이는 오래간만에 고향에도라왓습니다。 오래못뵈든부모님을 뵈옵는것두 반갑거니와 자기를위해 애쓰는 동무들의풍류를 어쩌니반갑고 미안한지 몰랏습니다。 사실은 윤겸이 자기한사람만 올위해서 동무들이 그러케 애를 쓰는것만도 아니시만 그래도 윤겸이는 동무들의 얼굴이 모두다 인도사의얼굴이 같이 감아게 보엿습니다。 하ー야 자기와윤겸과 손이너부 부끄러워 공연히 얼굴이 화화 달어올는 기까지하엿습니다。

「너이들 그동안 얼마나 애썻니。」

하고 발음하다가 윤겸이는 목이 미어 더발을 하지못햇습니다。

덕조이 시환의손을 오스러저라하고 잡으서는 서로 흐득흐득 피사에 가슴속에 매첫든 말을 다털어내노치도 못하엿습니다。 울겸이는 상조회의 그동안 되여가는형편을 그때그때마다 시환이편지와 자기아버지편지로 대강대강알고는잇섯지만 정작 고향에와보니 벌벌것에 발형하여 놀랍습니다。

첫재 자기와같이 뭐고놀며 한 보통학교에 공부하다가 졸업하고 보통학교를 맞첫지만 그전데 정하나 돈이 업서 상급학교에 가지못하고 그대로 집에서 썩엇습니다。 벌써 다섯달 적나 그대로 잇는게 그보 하여 잘지 안을때 그냥 혼자 지내면서 도 공부를 쇄가지고 나가자고 결심하고 맹세하엿습니다。 ...

첫재 자기와같이 뭐고놀며 또한 보통학교에 다니든 동무들이 하나는 생각이나서 어쩌나 서로 잡을 다 저로 편지까지 허려서 빈 너만남고 너까지는 신발만잇는것 을볼때는 울고 싶도록 이상한생 가이 낫습니다。 나는 마츰내

「오냐! 우리동네사람들이 반 수로 어니로 다닌것으로 버나 가지안고 고향에 그냥두러부터 서 산도록하지 안으면 안되겟 다。 그리하자면 우선 나부터도 공부를 더 만히해서 만히알아 가지고 저사람들을 이땅에서 산 아보자고 깨우처야만 되겟다。」

하고 혼자 결심하고 맹세하엿습니다。 현관집이 잇는대신 새로 고 전에없든 새우물이 아레웃반 운모간좃이 잇는것도 변하것이 보다도 사람들의 망이 전보다 좀더러진것같은것을 느낄때 깁이는 기쁨도 생기고 섭섭도 지게되엇습니다。 무엇보다두 열 세동무중에서 광철이가 영 나간것을 볼때

강아지十一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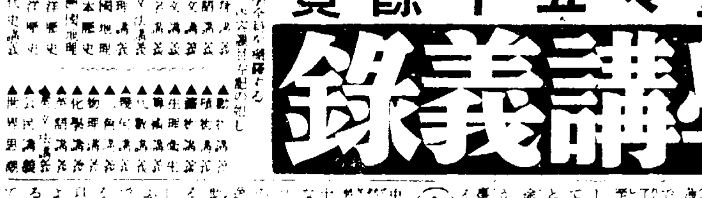
나란이 서서 으이소케 먹는것은 강아지 十一형제오 그뒤에 따르잇는 두마리는 아빠 엄마입니다。

特別製作品 비아 流行 곱새야 위우는 달 빗어린 荒野에해 ... 大

天下一品 一家一二! イラトイ キンイトイラ
잘쓰입니다 잘씌어! 三段跳!! 日本一 東洋一 世界一 ライトか 優勝?
2온스入正價30전 (大屋小屋各種 全國文具店에잇소)
本舖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全十二巻堂々五千餘頁
模範速成 中學講義錄
獨學青少年よ 見逃したら大損 タツタ三圓で 中學卒業の實力が!
(毎) 日々、色んな檢定試驗に合格したといふ喜び…
(内) …
(と) …
タツタ三圓のお金で 中學全科十二巻を一度に送本す

申込と送金法
一、會費 講義錄十二卷代 三圓
一、送料 內地四十錢 四十五錢
右の會費に送料を添え前金にて小爲替又は振替口座 東京八四八三八番へ拂込の事
都合上代金引替で申込の時は 內地は送料共、三圓六十錢で送る 海外は送料共、三圓八十錢で送る
注意 御送金着次第會員名簿に登錄左の
●講義錄全十二卷揃 ●本會の會員證
右を全部同時に嚴重包裝急送す
注意 東京・麴町・九段 振替東京八四八三八番 昭和模範中學會



金融、貿易政策의 各種封鎖馬克、投資購入等에利用

[illegible]

1、自由馬克勘定

一九三一年七月十五日以後 [illegible]

二、信用封鎖勘定

[illegible]

(3)紙幣封鎖勘定

[illegible]

朝鮮金融機關의 全面的整備必要

新興産業의金融機關新設等

第二次的工作이注目

[illegible]

朝鮮內에도 石油價引上

[illegible]

石油業者＝濫賣防止協議

[illegible]

朝鮮內米取의 改革案進捗?

山本氏米株兼營不變理로 今後進展이注目

[illegible]

穀物大會의 役員을決定

[illegible]

漁村金融을整備해 資金圓滑을要望

各水産會社聯合聲明

[illegible]

萬五千噸常貯 硫安暴騰을防止

農林省明年度新施設

[illegible]

米穀證券 七千三百萬圓借換

[illegible]

滿洲輕金屬公司 九月中에創立

[illegible]

滿洲의棉花 七割增收豫想

[illegible]

米日爲替保合

[illegible]

石油株奔騰

[illegible]

財界消息

[illegible]

土曜株評 分岐注目

彪大豫算을中心으로

[illegible]

今日의市況

八月二十二日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依然히無勢

前場下支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雙方難進、보다시細刻

[illegible]

東新依然小掬 九月로戰線延長?

[illegible]

動機待의人氣

[illegible]

有力事業株 (15)

日魯漁業

[illegible]

期近無力은 實勢不良의暗示

米豆餘墨

[illegible]

米期 期近低나 下支

前場低落 [illegible]

後場下落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各限保合

[illegible]

正米 買薄로 頭重

京城低弛 [illegible]

仁川軟調 [illegible]

群山保合 [illegible]

大邱凡調 [illegible]

釜山頭重 [illegible]

木浦同調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八月二十二日

海外金銀 (廿一日)

東京金銀

京城金銀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株式 京城本町 米 光亞 東京益證券商店 金益證券

柳來恒取引店 株式 玉 仁川本町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